

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, ‘해양안전 TF 전체회의’ 주재

-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2~3월 특별 관리기간 지정 및 구명조끼 착용 지도 강화

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1일(수)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‘해양안전 TF’ 전체회의를 주재했다.

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수부, 해경청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선급,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위험요인을 발굴·개선하고 현장 이행력 강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.

해양수산부는 TF를 통해 전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, 위험물운반선 작업 절차 집중점검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'24년 164명에서 '25년 136명(잠정)으로 17%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 반면,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한계도 있었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사고 현황과 TF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, 이를 반영하여 '26년 TF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. 이와 함께, 연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~3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별 중점 관리 계획도 논의했다.

김 직무대행은 “올해에도 해양안전 TF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한다.”고 강조하는 한편, “인명피해가 급증하는 2~3월을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.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	책임자	과 장	이민중(044-200-5810)
	해사안전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김세준(044-200-5846)